

“사불산 보호에 모든 방법 동원”

신한국 문경시장, 채석장 반대 투쟁위·주민에 약속

개발 땀 묘적암 등 피해 우려...철산 스님 등 단식 계속

신라고찰 운필암 묘적암 등이 위치해 있는 경북 문경 사불산의 채석장 개발계획에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 문경시장이 주민들에게 “모든 법적수단과 행정조치를 동원해 사불산을 채석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허 판결을 받은 구미 북우산 채석장 개발이 지난 9월 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는데 이어 이어 문경 사불산 묘적암 500m 옆에 채석장 허가를 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결성된 소백산 사불산 채석장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철산)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은 환경보호와 문화재보호 그리고 주민의 참뜻이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10월 9일 문경시청을 방문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채석장 개발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12일에는 대승사 주지 철산 스님을 비롯한 문경불교계 스님과 신도, 사불산 인근마을주민 등 300여명이 점촌역 앞 광장에 집결해 결기대회를 갖고 시청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채석장개발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뜨거운 가을 별 아래서 2시간 30분여 동안 이어진 삼보일배 도중 묘적암 갑원일초 스님과 운필암 비구니스님이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본 신한국 문경시장은 주민들에게 “사불산 보호”를 약속했다. 철산 스님으로부터 사불산 채석장 개발 결사반대의 뜻이 담긴 성명서와 결의서, 진정서 및 서명자료 등을 건네받은 신 시장은 “삼보일배를 하면서까지 지역행정에 관심 가져준 지역민들의 귀한 말씀을 받아 아깝다운



문경불교계 스님들과 대중이 10월 12일 사불산 채석장 개발을 반대하며 점촌역에서 문경 시청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문경과 사불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채석장개발에 대한 모든 서류와 조건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책을 강구한 후 조만간 불허방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채석장 개발로부터 불교성지를 지키기 위해 10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대승사 주지 철산 스님은 “신한국 시장의 약속을 믿는다”며 “문경시의 불허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단행하기로 결심했던 시청 앞 단식 농성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 사불산 자락(호암리 산 142의 5필지)의 채석장 개발사업에 관한 문제는 문경산업이 지난해 9월 문경시에 채석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문경산업은 주민들의 반대와 진정에 부딪쳐 신청서를 자진 반려했으나 이후 일부 주민들을 회유해 동의서를 얻은 후 2006년 2월 다시 문경시에 채석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문경시는 주민들과 스님 등의 반대진정과 자연경관의 보존 등을 위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문경산업은 문경시의 불허가 처



분에 불복해 2006년 4월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8월 9일 문경시가 패소했다. 현재 문경산업측은 행정심판의 승소를 근거로 9월 19일 채석허가신청을 문경시에 접수하고, 허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철산 스님은 “현재도 금이 가 있는 고려시대 마애불이 채석장 발파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석산 개발을 위한 발파 때 일어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국보급 문화재의 손상 △소음 분진으로 인한 수행도량환경 훼손 △분진으로 인한 인근 잣나무와 소나무 고사 △지역 주민들 건강에 유해 △국가의 자연보호정책에 위배되는 생태계 파괴와 사불산 지각변동 △묘적암 건축물의 손상위험 등을 이유로 사불산주변의 석산개발을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시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벌이고 있다.

글·사진/문경=배지선 기자

선운사 범종 고별 타종 후 박물관에

범종각·범종 새로 조성, 9월 30일 타종법회 봉행

고창 도솔산에서 188년간 증생제도의 원력을 법계에 메아리쳐 온 선운사 범종(전북유형문화재 제31호)이 세월이 밀려 마지막 고별인사를 했다.

선운사주지 범여는 9월 30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 몽산(대흥사 주지), 두백(백양사 주지), 도후(불교방송 이사장), 일면(군중교구 주지), 현각(연꽃마을 이사장) 스님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장세영 고창군의회 등 지역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각 낙성 및 타종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사진왕문 2층에서 범음을 울리던 선운사 종은 5회에 걸친 고별타종과 함께 선운사 성보박물관으로 물러났다.

새로 조성한 범종 타종에 앞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마지막 종소리는



제행무상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며 “참 살림살이를 위해 항상 마음의 종도 함께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새롭게 18평 규모의 범종각을 마련하고 1500관 크기의 대종과 사물을 봉안하게 됐다”며 “모든 중생이 범종 소리를 듣고 불성을 깨우치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준엽 기자

원목가공에서 책이 되기까지...

해인사 27일부터 팔만대장경 축제... 다양한 체험 가능

우리의 전통목판인쇄문화를 한자리에 체험할 수 있는 ‘2006 합천 팔만대장경 축제’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팔만대장경축제는 국내 유일의 목판인쇄문화축제로 조선 조기(1398년) 대장장이 강화도에서 서을 지 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옮겨진 역사적 사건을 철저한 고증을 거쳐 완벽히 재현하는 행사다.

올해의 축제를 주최하는 합천 팔만대장경축제위원회(공동위원장 현웅, 심의조는

배지선 기자

“원목가공에서부터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재현한 목판인쇄문화체험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판화교실, 스텝트 판화작기 등의 체험형 축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유일의 목판문화축제는 이틀에 걸맞게 우리나라 최고의 판화작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야외 판화전시회 ‘해인삼매’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청소년판화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새 본부장에 현지 스님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 생명나눔실천)는 10월 10일 광주아시아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현지 스님을 제4대 본부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본부장으로 추대된 현지 스님은 “광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 특성을 살려 복지, 환경, 포교가 함께하는 사업을 펼쳐겠다”고 소감을



천미희 기자

밝혔다.

현지 스님은 1971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 원각사 주지, 광주불교 승보회장, 광주불교사암연합장을 역임했다. 현재 원효사 주지, 우리겨레하느님기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광주 원각사 20일 가을음악회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20~21일 양일간 가수 이용 씨를 초청해 ‘원각사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잊혀진 계절’의 주인공 이용 씨를 비롯해 재즈악단, 황보제(국악실내악단) 등이 출연해 가을밤을 국악과 양악으로 수놓는다.

원각사는 또 음악회에 앞서 사찰 경내에서 ‘소설가 정찬주와의 만남’과 ‘장영일 서양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062)223-3168 이준엽 기자

이준엽 기자

부산 금강선원 삼존불 점안

법어사포교원 금강선원(주지 성중)은 10월 11일 삼존불 점안 법회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어사 조실 지유 스님을 증명 법사로 진행한 이날 법회에서 지유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불교의 전부이며 이 마음은 잔 것을 차다고 알고, 뜨거운 것을 뜨거운 이는 바로 그 자리”라며 “그 마음자리를 알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금강선원은 12월 5일 오전 10시 천일기도를 입재하고 10월10일 되는 날마다 교계대덕 스님을 초청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일요 가족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토요일 참선법회를 열고 내년 3월에는 불교대학도 개설한다. (051)334-8113 천미희 기자

호국사 순직 병사 천도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육군종합정비창장인 이창권 준장을 비롯 송광사 부산본원 주지 지현 스님 등 군장병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법사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는 육군종합정비창장인 이창권 준장을 비롯 송광사 부산본원 주지 지현 스님 등 군장병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사보 '혜원' 200호 발간

22일부터 백일장 등 축제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해)는 혜원정사 사보 <혜원> 200호 발간을 기념하며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혜원축제를 개최한다.

22일 오전 오후 1시 입재식을 갖고 축제의 막을 여는 혜원축제에서는 그동안 <혜원>지를 장식해온 표지 사진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해)은 문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혜원백일장도 개최한다.

10월 28일 토요일 열리는 혜원백일장은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홈페이지(www.bokhyewon.or.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051)868-0138 천미희 기자

대림선원·죽장사 군부대 위문

육군 대림선원(주지 지원)과 죽장사(주지 명효)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맞아 37사단 호국충용사를 찾아 위문법회를 열고, 새로 입대한 훈련장병 100여명에게 수계했다. 법회 후에는 장병들에게 떡과 음료, 단주 등을 보냈다. 이날 오전에는 육천경찰서 경승회는 육천대대와 육천경찰서 등에 떡을 전달하고 전의경들을 위문했다.

혜원 대림 총북 지사장

“타종교지도자 만나 재발방지 모색”

부산불교련, 기독교년부흥회 적극 대응...확대위 구성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10월 12일 부산불교회관 7층 여여선원 법당에서 ‘사찰이 무너지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를 사용한 기독교년부흥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를 꾸리기 위해 긴급 확대 이사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상임부회장 혜중 스님을 비롯 60여명의 스님과 60여 명의 신행단체장들은 이날 회의

에서 ‘범불교적 차원에서 이성적이며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뜻을 결집했다. 또 보다 확대된 대책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대책위원장으로 여여선원 주지 정여 스님을 추대했다.

정여 스님은 “기독교, 천주교의 지도자들과도 만나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도량

조계사 향건 기념 주간 안내 창건일 10월 24일[음력 9월 3일 화요일]

늦은 가을 저녁 조계사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춤의 무대 **회화나무 음악회**

10월 28일(토) 저녁6시, 조계사 앞마당 특별무대
출연 : 청소년 협합 댄스 동아리, 조계사 합창단, 초청가수 등

조계사 시민선방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범주스님 초청 선목화전**

10월 13일 ~ 23일 (10월 13일 오후 1시 개막 퍼포먼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시장

조계사 불교대학 학생회 **3000배 용맹정진**

10월 21일 저녁 7시부터 10월 22일 새벽4시

가을건이 대동한마당

10월 29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조계사 주변 조계사와 자매결연은 맺은 기원도 양구의 다섯곳과 마을지역민들과 함께 흥겨운 **축제의 마당, 떡거리 마당** 그리고 **지역 특산물 판매**가 진행됩니다.

문화체험마당

10월 22일 ~ 10월 28일, 조계사 대웅전 주변 불화작품전시 및 사물체험/서예 작품전시 및 경구 써주기 다도 시연 및 체험/요가 시연 및 생활동작 배우기 꽃꽂이 시연 및 꽃포장 배우기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시간씩 펼쳐지는 일곱색깔 음악회 일주일간의 음악여행(七日七音)

10월 22일 ~ 28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별무대

10월 22일 일요일	국악	오후 1시
10월 23일 월요일	타악	오후 12시 20분
10월 24일 화요일	창작관소리	오후 1시
10월 25일 수요일	클래식	오후 12시 20분
10월 26일 목요일	해금	오후 12시 20분
10월 27일 금요일	재즈	오후 12시 20분
10월 28일 토요일	회화나무음악회	저녁 6시